

100년, 1000년 대대손손 찾아주는 즐거움



집문당集文堂은 말 그대로 '글을 모으는 집'이다. 1971년 인문분야 학술전문 출판사로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출간된 종수만 2,200~2,300종이 된다. 이처럼 30년 넘게 남들이 기피하는 학술출판을 고집하면서도 견재할 수 있었던 것은 임 경환 사장(66)의 탁월한 시장분석력 때문이다. 그는 학술도서에 또 흐름이 있다고 말한다. 또 반대로 학술도서를 출간함으로써 새로운 흐름을 유도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에 전산학파가 생기기도 전에 집문당은 컴퓨터서적을 만들었다. 한국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고 해 해양과 관련된 책을 내기도 했고, 굴뚝 없는 산업이 미래형 산업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자 남보다 먼저 영화관련 필자들을 섭외해 전문서적을 만들었다. 해양과 관련된 서적의 경우 필자를 구하지 못해 금방 그 분위기가 가라앉기는 했지만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집문당의 이러한 노하우는 임 사장의 성격 탓이기도 하다. 체질적으로 경쟁을 싫어하는 그로서는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분석하고 선점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나 봐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저처럼 술을 못 하는 사람은 또 술 못 하는 사람끼리. 술을 못하는 경우 의기투합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고 명확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부수는 많지 않지만 이러한 흐름을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팔리는 책도 있다. 물론 그런 책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동양화 읽는 법》《한국문학사의 쟁점》 등과 같은 책은 매년 1,000부씩 10년에서 15년 가까이 팔리고 있어 집문당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출판계의 대선배로서 요즘 걱정스러운 것은 한없이 가볍게만 만들려고 하는 제작풍도다. 과거에 한 페이지에 원고지 12장 가까이 들어가던 것이 요즘엔 3,4장 들어가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 권이면 될 것을 두 권으로 만들고, 안 그래도 비좁다는 도서관의 책꽂이를 두 배로 차지하는 거죠. 공항 같은 곳에서 외국인들이 읽는 책을 보세요. 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판형도 작고 종이 질도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형태로 출판을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임 사장으로서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 저자도 독자도 이를 좋아한다는데 혼자 고집을 피울 순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집문당이 낸 책 2,300종 중 1,300종 이상이 시장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불가피하지 않을 경우 절판을 하지 않겠다는 임 사장의 방침 때문이다.

"과학 같은 분야는 그 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책이 나오지만 한국학 관계 자료집은 그것을 다시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구할 수 있게 재고를 남겨두는 거죠. 누구는 그 비싼 땅(종로)에 일년에 10권이 팔릴까 말까한 책들을 쌓아두는 바보가 어디 있다고 하지만 이들 책의 도움으로 돈을 벌었으니 그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 사장은 학술도서는 50년, 100년, 1000년 후에도 대대손손 독자가 있고 보존된다는 데 그 매력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한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서적을 출간하면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돈도 벌어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